

# 장성,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해제... 개발 탄력

### 가축분뇨처리공장 건립 오염줄이기 일조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등 지역발전 가능

장성군이 19일 수질오염총량제 규제가 전면 해소됨에 따라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면 각종 승인 등 지역개발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3월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오염부하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에서 제한을 받

았었다. 지난 2010년 당시 인구 및 가축 사육두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고,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늦어지고 가축분뇨의 퇴비공장 위탁처리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총체적인 원인 탓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 추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삭감시설 발굴에 나섰다.

또 총량제 전문가를 초빙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공직자를 총동원해 가축분뇨 전수조사 및 투수성포장 주차장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발굴에 주력했다. 특히 시공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비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오염부하량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

군은 이번 성과로 장성호 수변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장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지역발전전략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연차별로 할당량을 준수하지 못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체계적인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 나주 스타기업 매출·고용 급증

### 5개업체 매출액 16%·인원 7% 증가

나주시가 지역의 중소기업 가운데 사업성과 기술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스타기업들의 지난해 매출과 인원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와 (재)전남테크노파크는 19일 오전 가진 스타기업 육성사업 보고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원도물산과 샬롬산업, 우성산업과 동의나라 등 5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57억원으로, 전년도 49억원에 비해 15.8%, 평균 고용인원은 3487명으로, 전년도 2735명에 비해 7%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타기업육성사업은 나주시가 2011년도부터 (재)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지원서비스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개발·마케팅·종합컨설팅 분야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지원을 해왔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전남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인프라와 자금조달 외에도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며 "행정은 한계가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 통합의학박람회 10월25일 개최

### 장흥 관산읍 천관산 일원서

#### 통합진료관 시범 운영 난치성 질환 체험관 구성

전남도는 국내 유일의 통합의료 체험행사인 제4회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2만여명이 다녀간 통합의학박람회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통합의학적 진료·검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도가 통합의료 시범을 구축하는 한 해로 삼을 계획이다.

전시 중심의 타 행사와 달리 100%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 중인 통합의학박람회 추진팀은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한국통합의학회, 대한박람회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2만여명이 다녀간 통합의학박람회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통합의학적 진료·검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도가 통합의료 시범을 구축하는 한 해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특정 질환을 선정해 양·한방 의사와 보완대체의학 전문가가 한자리에 진료하는 통합진료관을 시범 운영, 국가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50개의 전문 의료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해 만성 난치성·어린이·노인성 질환 등을 주제로 체험관을 구성하고 검증된 보완대체요법 및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장흥=김홍희기자 choul@

전시 중심의 타 행사와 달리 100%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 중인 통합의학박람회 추진팀은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한국통합의학회, 대한박람회 오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2만여명이 다녀간 통합의학박람회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통합의학적 진료·검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도가 통합의료 시범을 구축하는 한 해로 삼을 계획이다.

# 문화관광형 목사고을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이 최근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나주시는 나주목사고을시장을 풍부한 살거리, 다양한 볼거리, 옛 전통시장의 향수 등을 즐길 수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침이다. /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목사고을시장이 최근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나주시는 나주목사고을시장을 풍부한 살거리, 다양한 볼거리, 옛 전통시장의 향수 등을 즐길 수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침이다. /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지난해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직자들이 수련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새내기 공직자, 강진서 '다산정신' 배우다

#### 전국 지자체 신규 임용자 올해도 다산수련원서 교육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주관 공직자 교육이 3년 연속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실시된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20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2박3일 동안 120명씩 20차례에 걸쳐 모두 2400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13 다산공직자 학습 및 체험과정'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강진 다산수

련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3169명의 전국 새내기 공직자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 2053명 등 2년 동안 모두 522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전국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은 담당 업무분야 최고의 지방공무원인 '행정 달인' 초청 강연, 다산의 창의적 사고에 관한 강연, 목민관의 자세에 관한 강연 등 다양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또 교육생들은 다산의 식단을 재현한 1개의 '다산 밥상'으로 식

사를 하고 다산유물전시관, 다산초당, 백련사, 백운동, 사의재 등 다양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게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다산의 학문과 사상을 배경으로 다산체질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전국의 모든 공직자가 선호하는 전국 공직자 교육 요람지로 우뚝 서겠다"며 "교육생들도 다산 선생이 강조한 청렴과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목민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만의 공직관을 꼭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전북

# 순창, 시래기무 농가소득작목 육성

#### 재배기간 짧고 쉬워 61농가 15ha 희망



순창군이 웰빙시대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 중 인기상승 품목인 시래기무를 농가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시래기(사진)는 친환경 웰빙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재배기간이 짧고 재배방법이 쉬워 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수도작 대비 소득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에 따르면 1000㎡당 수도작이 7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시래기무는 117만원으로 수도작보다 소득이 훨씬 높다. 이처럼 농가소득이 높은 시래기무를 집중육성기 위해 군이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61농가가 15ha의 재배면적을 희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구시래기무 작목반 김영남 사무장을 초빙해 '시래기 무 재배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시래기무 재배 후 건조에 필요한 시설과 유통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순창읍 백산리 민속마을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음식점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판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새만금 간척지 관할권 정부가 나섰다

# 행안부, 1~2호 방조제 구간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후 분쟁위 상정

새만금 가려왔던 사용권을 두고 촉발된 행정구역 다툼에 결국 정부가 나섰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4만100ha)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공고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지자체와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3~4호 방조제 구간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처

남어간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획정 기준점을 국제적인 관례인 하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세 차단체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83회 남원 춘향제, 4월 26일~30일

제83회 '춘향제'가 오는 4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5일 동안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춘향제전위원회는 19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원주 남원시장과 춘향제전위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처

한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이번 춘향제의 주제는 '사랑의 기적! 남원에서'로 83년의 춘향제의 역사를 시민과 함께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로 만들기 위한 희망과 뜨거운 마음을 담았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단신

# 정읍농기센터, 귀농·귀촌 희망자 영농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 적응 및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22일까지 가능하며 귀농·귀촌인(5년 이내)과 귀농 희망자라면 읍면동사무소나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기술센터는 26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 5월 31일까지 교육일정에 맞춰 성공하는 귀농, 친환경 유기농업이란, 귀농인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귀농 성공사례, 작목별 기술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및 안전실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 군산 방축도마을, 생태 우수마을 재지정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마을이 2013년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지정기간 2013~2015년)되는 영예를 안았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제도는 환경부에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전·조성한 사례를 발굴해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 관리해

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된 방축도는 고군산군도의 북서쪽에 위치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하여 방축도라 불린다. 군락을 이룬 동백나무 숲과 차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고인물 등 역사 관광자원이 보존돼 있다. /군산=박성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북분자센터, 우리술 양성기관 사업 선정

고창군은 19일 "(재)고창북분자연구소가 최근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족한 전통주 산업 발전과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조전통기술, 유통 및 마케팅 등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술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

성하는 것이다. 우리 술 제조 및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교육은 정중태 연구소장이 과정장을 맡고, 내·외부 전문가 13명을 선정하여 전통주 이론 및 제조 실험, 주류 유통 및 마케팅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주 관련 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통주에 관심이 있는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창=김철수기자 knews@

# "전주에 항소법원 설치해 달라"

#### 유치 추진위 촉구

전북지역 법조인들이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 항소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는 19일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각 지방법원에 항소심 전담 항소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법원의 심급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3심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지방법원에도 항소부가 설치돼 항소심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2곳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돼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런 이원적 구조는 지방법원에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해 자기 사건을 자기가 다시 재판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김점동 추진위 공동대표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법관의 인사 교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또 항소심 재판이 전문화되지 못해 재판에 대한 불신까지 낳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을 설치해 항소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부안 노을감자 수확 19일 오전 겨우내 비발하우소에서 키운 영암 만점의 부안의 노을감자를 동네 아낙들이 선별해 상자에 담고 있다. 노을감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연희뉴스